

경우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동 조사에 따르면 가장 개방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1.27점, 1.78점을 받았다. 그밖에 대만(5.04), 말레이

시아(5.2), 필리핀(5.69), 베트남(5.8), 태국(6.21), 인도네시아(6.88), 일본(7.15), 중국(7.48), 한국(7.67), 인도(7.7)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亞洲經濟室 全昌浩 / 白正鎬 研究員】

動 向

舊蘇聯 動向

러시아 經濟가 금년 상반기 들어 工業生産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차츰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改革內閣이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정화 정책과 자연독점 國營企業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政治, 經濟가 안정되면서 西方國家들, 특히 日本의 對러시아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러시아 경제, 회생기미

금년 상반기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였으나 그동안 오랜 침체를 보여 왔던 공업생산이 회복세로 반전되고 인플레이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러시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 實質GDP增加率は 전년동기대비 -0.2%(96년 상반기 -4%), 공업생산증가율은

同 0.8%(同 -4%), 농업생산증가율은 同 -5%(同 -7%)를 각각 기록하였다. 또한 금년 상반기 인플레이率は 8.6%(96년 상반기 15.5%)를 기록, 前年 같은 기간에 비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舊蘇聯 붕괴 이후 러시아는 舊蘇聯 공화국 간 협조체제 붕괴로 인한 교역급감 및 생산 하락과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체제전환기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각한 경제침체 및

물가불안을 경험해 왔다. 199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된 러시아 경제는 주요 경제개혁이 실시된 1992년에 최악의 經濟沈滯(實質GDP增加率 -14.5%)를 경험하였으며, 1995년에 다소 완화(同 -4%)되는 듯하였던 경제침체현상은 1996년 들어 다시 심화(同 -6%)되었다. 한편, 화폐부문에 있어서는 가격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던 1992년에 2,000% 이상의 超인플레이를 기록한 이후 IMF의 권고에 따른 긴축정책 실시로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추세를 보여 작년에는 21.8%의 인플레이율을 기록하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러시아 경제가 회생기미를 보이는 데에는 1992년 경제개혁 실시 이후 러시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제안정화 정책이 西方의 지원과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힘입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업생산이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西方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중소기업 및 외국인 합작기업의 생산증가와 1차금속(전년동기대비 2%), 비철금속(同 2%), 화학·석유화학(同 0.7%) 등 러시아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에서의 생산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년 1/4분기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액은 22억 3,91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하였고, 이중 직접투자도 6억 2,58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를 기록하였다. 또한 연평균 20% 이상의 감소를 기록, 러시아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어둡게 했던 총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9% 감소를 기록,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었다.

금년도 러시아 경제는 경공업, 농업 등의 여전히 생산침체로 年初 서방 및 러시아 정부가 전망한 2%대의 경제성장은 다소 어려

울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독점부문의 구조개혁, 국영기업 민영화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개혁이후 최초의 성장국면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貨幣單位改革 실시키로

엘친 대통령은 8월 4일 기존 루블貨의 명목상 가치를 1000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폐단위 개혁안을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8년 1월 1일부터 기존 화폐 1,000루블에 상응하는 새로운 1루블 화폐를 도입한다. 98년 1월 1일부터 98년말까지는 기존 루블貨와 새로운 루블貨가 병용되며, 99년 1월 1일부터 기존 루블貨의 사용은 금지되나 새로운 루블貨와의 교환은 2002년까지 지속된다.

이번 화폐단위의 개혁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루블貨 價値의 안정과 성공적인 인플레이 억제 등으로 인한 貨幣金融政策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되고 있다. 92년 年 2,510%를 기록하였던 물가상승율은 96년에는 21.8% 그리고 97년 상반기에는 8.6%로 크게 안정되고 있다. 루블화 가치는 95년 7월 管理變動換率制와 96년 7월부터 현재 시행중인 Crawling Peg制度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92년 개혁정책 실시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던 러시아의 산업생산도 97년 상반기에는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이번 화폐단위 개혁은 그동안 초인플레이로 야기된 높은 貨幣單位를 단순화함으로써 시민생활상의 불편함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 기대심리의 억제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루블화의 실추된 명예도 회복하려는 다분히

심리적인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92년초 경제개혁 당시 루블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은 0.55루블이었으나, 현재는 5,800루블을 기록하여 달러에 대한 루블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다.

이번 화폐단위의 개혁을 계기로 러시아 정부는 경제의 4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地下經濟를 양성화하여 경기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러시아 정부는 최근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를 실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IMF도 이번 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방의 러시아경제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로 인한 경제적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동안 러시아의 通貨 불안정 및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로 침체되었던 對러 投資 및 交易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시적인 物價不安 심리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도 있어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日本 정부, 새로운 對러시아 정책발표

하시모토 류타로 日本 총리는 지난 24일 그동안 冷戰主義的 사고에 기초한 對러시아 정책에서 탈피하여 兩國 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신뢰’, ‘상호이익’, ‘장기적 관점’이라는 새로운 對러시아 정책의 3대 原則을 발표하였다.

日本 정부는 북방영토 문제에 있어 장기적

으로 다각적인 對러시아 지원정책을 통해 양국간에 신뢰를 회복한 이후에 주변여건의 성숙여부에 따라 이 문제를 서서히 제기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와 日本 정부의懸案으로 되어 온 북방영토 반환문제와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 日本 정부는 북방영토 문제의 진척 정도에 따라 경제교류를 확대해 가는 확대균형노선을 고수하여 온 반면 러시아 정부는 국내 민족주의자들과 여론 때문에 북방영토 반환에 있어 절대 불가원칙을 견지해 오면서 日本의 저조한 對러시아 투자에 강한 불만을 보여 왔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와 특히 日本 정부는 시간이 흐를 수록 이러한 양국관계가 양측 모두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차츰 인식하게 되었다.

양국간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러시아 측에서부터 나타났다. 엘친 정권은 엘친 대통령의 再選 성공과 건강회복으로 강력한 權力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對日정책에 있어서도 한결 유연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개혁 내각은 의욕적으로 제2의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기업들 특히 일본기업들의 對러시아 투자진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뎀초프 제1부총리는 일본을 방문해 지금이 양국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세워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였고, 뒤이어 북방영토 해역에서의 일본 어선들의 어업행위를 허락하는 조치와 북방4개 섬에 대한 공동개발을 일본측에 제안하였다.

한편, 日本 정부도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더 이상 冷戰思考로는 북방영토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와의 경제적 이해를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日本 정부는 G7에 새로운 멤버로 참여하게 되는 러시아를 적대진영의 일원으로 보는 舊시대적 冷戰思考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국제정치 사회에서 유라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美國, 中國 이외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되었다.

經濟的 측면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자원개발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일본에도 커다란 利益이 된다. 日本은 에너지 자원의 높은 中東지역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극동지역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나, 경제적 이해보다 북방영토 반환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앞서서 對러시아 投資는 다른 서방국가들에 비해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광대한 시장과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국내상황이 안정되고, 經濟도 서서히 성장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자 이제는 일본도 더 이상 러시아 시장에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일본의 對러시아 정책은 변화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일단,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WTO, APEC, ASEM 가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지의사를 표명할 것이며, 경제적으로 그 동안 계획단계에 머물러 왔던 일본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 변화에 대해 열린 정부는 일단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나

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이다. 예를 들어 3대 원칙 중 '상호이익'은 日本 정부가 러시아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對價로 북방영토를 요구하겠다는 意圖로도 해석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일본의 對러시아 정책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어쨌든 惡化一路에 있었던 양국관계는 急旋回하여, 앞으로 양국간에 활발한 정치적, 경제적 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사할린- I 프로젝트」, 2001년부터 本格 生産에 돌입

러·美·日 3국 기업들에 의해 추진되어 온 「사할린- I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2005년)보다 빠른 2001년부터 본격적인 生産體制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2억 9천만 톤, 천연가스 4,250억m³의 매장량을 보이고 있는 「사할린- I 프로젝트」는 總事業費가 150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최대의 에너지자원개발사업으로, 美國의 Exxon(총지분의 30%), 日本의 Sodeco(〃 30%), 러시아의 Rosneft(〃 17%)와 Sakhalinmorneftegaz(〃 23%) 등이 참여하고 있다. 同 프로젝트에는 차이보, 오도프투, 알쿠툰-다기 등 3개의 광구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중 1996년 7월부터 탐사작업을 시작한 차이보 및 오도프투광구에서는 유망한 油層 및 가스層이 광구 서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알쿠툰-다기광구에 대해서는 금년 7~10월에 걸쳐 3개의 探査井을 뚫어 油層 및 가스層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다.

위와 같이 「사할린- I 프로젝트」의 생산시점이 앞당겨진 이유는 현재까지의 試掘作業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음은 물론 지난달 개최된 러·日 經濟共同委에서 러시아 측이 생산장비의 반입시 관세 면제와 自體 管理監督機關의 설치 허용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어온 사할린해상 석유·가스개발사업은 日本의 이토추, 마루베니 등을 주축으로 한 企業聯合인 Sodeco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북방4도 반환문제를 둘러싼 러·日간의 갈등 증폭, 러시아의 특혜조치 지연, 日本의 석유·가스개발역량에 대한 러시아의 신뢰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상의 隘路를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부가 1993년 10월과 1994년 11월 옐친 대통령과 소스코베츠 제1부총리의 訪日을 통해 ‘북방4도 반환문제와 관계없이 經協을 추진한다’는 政經分離原則에 합의하자 Sodeco는 美 Exxon의 참여를 계기로 對러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데 성공, 결국 1995년 6월에 生産物分配契約(PSA) 체결을 이끌었다. 그러나 PSA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법률(PSAL, 一名 생산물분배법)의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할린해상 석유·가스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 I, II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生産物分配法 제정에 관계없이 이미 체결된 PSA에 입각한 사업추진을 보장한다’라는 政府令을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Sodeco와 Exxon은 96년 7월 차이보 및 오도프투광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탐사작업에 착수한바 있다.

Sodeco와 Exxon은 상기와 같이 早期 生産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당초 계획을 앞당겨 年內에 生産井 掘鑿地點과 항구까지의 파이프라인 경로 선정을 마무리짓고, 1998년 중에는 생산설비와 파이프라인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同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難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80%에 달하는 日本의 對中東 石油依存度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에너지 輸入先의 多邊化가 요구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사할린해상의 석유·가스를 개발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기업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Rosneft의 一部持分을 인수하는 방안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최대통신회사 스바지인베스트社의 지분 1차매각 완료

러시아 聯邦資産基金의 부의장 블라디미르 말린(V. Malin)에 따르면, 獨占部門 私有化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5일 실시된 국내 最大 通信會社인 스바지인베스트(SVYAZINVEST)社의 持分 25%+1주 매각(1차)에 대한 競賣에서 키프로스에 등록된 Mustcom社가 18억 7,500만 달러로 응찰하여 매입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스바지인베스트社의 제1차 사유화에서 당초 책정된 競賣開始金額(11억 8,000억 달러)을 훨씬 웃도는 가격으로 매각에 성공하여 상당히 鼓舞되어 있는 실정이다.

國際·長距離通信 인프라의 정비가 상당정도 진행된 러시아는 노후화된 地域電氣通信 인프라의 정비 및 설립이후 매각을 통한 국고수입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5년 9월 스바지인베스트社를 설립하였다.¹⁾ 同社는 산하에 89개의 통신회사를 거느린 대규모 持株會社이다(거의 모든 통신회사의 지분 51%

보유).

스바지인베스트社의 私有化는 1995년 12월 최초로 시도되어 이탈리아의 STET社가 입찰에서 성공하였으나 代金支拂方法 등이 문제가 되어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금년 2월에는 同社의 지분매각(49%)을 재개키로 하는 발표가 이뤄졌고, 이어 4월말에는 同社의 지분매각방식 및 국제·장거리 전화회사인 로스텔레콤社를 비롯한 전기통신 관련 기업 4개사의 국유주식을 同社로 이관하는 大統領令이 공포되었다. 여기에서는 同社의 지분 49%를 2회로 分割賣却하고, 1차 매각대금의 95%는 國庫收入으로 하고 나머지 5%는 同社에 귀속되어 지역전기통신망의 정비에 투입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²⁾. 또한 1차매각(25%+1주)에서는 모든 國內外投資者의 참여가 가능하나, 2차매각(24%-1주)에서는 國內投資者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스바지인베스트社의 私有化와 관련하여 최근 러시아 通信分野에서 나타나고 있는 大變化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通信部와 스바지인베스트社는 1996년 봄부터 통신기기 구입창구의 多樣化에 따른 통신망의 통일성 저해를 근거로 각지역통신회사용의 기기구입 창구를 自社로 一元化하고, 통신기기의 납입업자의 수를 制限하기 시작했다. 스바지인베스트社는 금년중에 5억 5천

만 달러어치의 通信器機 導入計劃을 갖고 있는바, 1996년 러시아의 通信器機 輸入額이 6억 달러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통신기기의 구입창구가 同社로 일원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通信部는 금년초 각지역통신회사에 대해 향후 러시아企業 또는 러시아內에서 활동하는 合作企業이 생산한 통신기기를 優先하여 購入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조치는 外國 통신기기 제조업체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몇몇 제조업체는 벌써부터 러시아內에서 合作企業을 設立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이번에 스바지인베스트社의 지분매입에 성공한 Mustcom社는 키프로스에 등록되어 있지만, 이 컨소시엄의 구성주체는 러시아의 Oneximbank계의 MFK, 르네상스 캐피탈, 인터로스, Deutschebank, 조지소로스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르네상스 캐피탈의 경우 오래전부터 스바지인베스트社의 산하기업에 대해 컨설팅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한편 同社의 2차 지분매각은 원래 98년 초로 계획되었으나 금년 9~10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스바지인베스트社의 私有化 작업은 그 과정에서 透明性이 提高(honest privatization)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同社의 지분이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자 관련통신

- 1) 소련붕괴후 전기통신인프라 정비는 投資效率이 높은 國際·長距離 전기통신부문 위주로 이뤄진바, 예컨대 90년 1,000회선 정도에 불과했던 國際回線數가 96년 가을에는 약 5만 회선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地域電氣通信網(시내전화)의 경우 投資가 遲滯되어 설비 노후화(상당수의 구식 crossbar와 step-by-step식 교환기 존재) 및 낮은 전화보급률(95년 100명당 18.1대 ; 韓國 96년말 36대)을 보이고 있다.
- 2) 매각대금의 배분율은 資料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코메르산트데일리紙(97. 5. 28)와 인테르팩스通信(97. 7. 28)에서는 스바지인베스트社에 5%가, 파이낸셜타임즈紙(97. 7. 26~27)에서는 同社에 29%가 귀속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업체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등 株式市場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매각을 통해 러시아는 국고수입 증대와 地域通信網 現代化 資金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지역통신망의 인프라 정비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러시아 通信市場에 참여하고자 하는 外國企業들은 앞서 보았듯이 現地合作進出을 도모하고, 각지역통신회사가 아닌 스바지인 베스트社에 대해 協商力을 발휘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歐洲經濟室 CIS팀】

動 向

中・東歐 動向

NATO가 마드리드 頂上會談을 통해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회원국 加入을 확정한 가운데,
NATO 가입에 따른 防衛體制 轉換을 둘러싼 武器販賣競爭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동구국가의 다음 목표인 EU 가입문제가
EU 회원국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우리의 對中・동구 輸出실적이 5년만에 감소세로 反轉되었다.
한편, 굴지의 서방 통신업체들이 중・동구 通信市場 先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가 국유 전기통신공사의 제1단계 사유화를 개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서방 통신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동구, 武器需要 급증

지난 7월 8~9일 개최된 NATO 정상회담

에서 중・동구 3개국의 가입이 발표되는 등
향후 NATO의 중・동구로의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방의 무기제조업체